



제113장 팔 라 곶

메카에서 계시된 5절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초기에 계시된 장으로 미신타파와 자연현상으로 부터 오는 두려움과 공포, 사악한 음모와 모사, 시기와 질투에서오는 모든 종류의 재앙으로 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일러가로되, 나는 동녘의 주님께 보호를 구하며 에서 언급된 「팔라곶」란 어휘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본다.

제 113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일러가로되 동녘의 주님께 보
호를 구하며¹⁾

2. 창조된 사악한 것들의 재앙으
로부터 보호를 구하며¹⁾

3. 어둠이 짙어지는 밤의 재앙으
로부터 보호를 구하며

4. 매듭으로 마술을 부리는 자들
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며¹⁾

5. 시기하는 자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노라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قُلْ أَعُوذُ بِرَبِّ الْفَلَقِ ۝١

مِنْ شَرِّ مَا خَلَقَ ۝٢

وَمِنْ شَرِّ مَا نُفِثَ إِذَا وَقَبَ ۝٣

وَمِنْ شَرِّ النَّفَّاثَاتِ فِي الْعُقَدِ ۝٤

وَمِنْ شَرِّ حَاسِدٍ إِذَا حَسَدَ ۝٥

1-1) 팔라끄 : 아침, 새벽, 여명기 즉 밤의 어둠을 깨고 하루가 시작하는 시각

2-1) 인간을 시험하기 위하여 창조된 사악한 모든 것

4-1) 실로 매듭을 만들어 그 안에 바람을 불어 마술을 부리는 행위로 이 요술로써 믿음 가진 자들을 괴롭혔고 또 남편과 아내 사이를 이혼케 하기도 하였다.